



이커머스에 밀린 대형마트 유통법 개정 '기대' 나



Life

바이오 업계 비용↓, 속도↑ 뉴코 전략 확산 L2



지구 숨 킂우고, 사회엔 희망을... 미래 모빌리티 '따뜻한 질주'

"기아는 앞으로도 글로벌 환경·사회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가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송호성 기아 사장)

기아는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6'을 발간하고, '영감을 주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움직임'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위기 극복과 포용적 사회공헌을 양대 축으로 하는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전격 공개했다.

송호성 사장은 "기아는 미국 관세와 글로벌 경쟁, 중국 기업의 공격적 확장 속에서 사상 최대의 경영 실적이라는 현재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며 "전기차(EV) 대중화를 선도하고 기후 위기 극복과 투명한 거버넌스를 통해 글로벌 환경·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기아

◆과학적 기반의 기후변화 대응과 전동화 가속화

기아는 환경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후위기 대응 이정표를 세웠다. 글로벌 탄소 감축 기준인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공식 승인을 획득하며 탄소중립 로드맵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다.

기아는 이를 바탕으로 2024년 대비 직간접 배출(Scope 1, 2) 및 공급망 배출(Scope 3) 사용 단계의 배출량을 2035년까지 63%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아는 2026년 기존 탄소배출 감축 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SBTi 기반 Scope 1·2·3 전 영역에서 감축 경로를 보다 구체화하고, 정량적 목표 관리 체계 및 이행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Scope 1·2 영역에서는 국내외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가속화와 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Scope 3 영역에서는 주요 원소재(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의 탄소 감축, 전동화 확대, 차량 경량화 및 연비 개선 등을 통해 가치사슬 전반의 탄소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아는 탄소 배출 저감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도입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기아는 글로벌 RE100 가입 이후 2025년 국내외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전환율 24%를 달성하며 당초 목표 대비 9%p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슬로바키아 사업장에 이어 2025년 중국 사업장이 신규로 RE100 달성을 완료했으며, 향후 멕시코(2026년)와 미국(2027년) 등 주요 해외 생산 거점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오토랜드 화성에 단일 사업장 기준 최대 규모인 50MW급 태양광 자체 발전 설비 구축을 확정하며 자급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가치사슬 전반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제품 전 단계에서의 순환경제 체계도 강화했다. 기아는 글로벌 환경 NGO 오션클린업과 협업해 수거한 해양 폐플라스틱을 신차 EV3의 트렁크 라이너로 재자원화하는 고도화된 자원순환을 실현했다.

전 생애주기 평가(LCA) 결과에 따르면 전용 전기차인 'EV5'는 원소재 채취부터 폐기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35.3톤CO₂ e로



기아 송호성 사장이 '2026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기아의 중장기 사업 전략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후위기 이정표 탄소중립 로드맵 세워 생산거점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전기차 모델로 탄소배출 저감 성과도

'초록여행', '하모니움', '무브투유' 등 장애인·다문화 청소년·고령층 위한 실질적 삶의 질 높은 사회공헌 펼쳐

협력사와 '동반 탄소 감축' 상생경영 이사회 독립성·투명성·건전성 강화 주주환원을 확대... 책임경영 실천해

측정되어 기존 동급 내연기관 모델(스포티지, 57.2tCO₂ e) 대비 탄소 배출량을 약 38% 저감하는 우수한 환경 성과를 증명해냈다.

◆사회적 가치 창출과 포용적 사회공헌 체계 확립

기아는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포용적 문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회공헌 행보는 다문화 청소년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이다. 기아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자립 교육 프로그램인 '하모니움(Harmonium)'을 새롭게 론칭하여 다문화인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 설치된 태양광 자체 발전 설비.

▲기아 '하모니움 교육프로그램' 2기 활동 모습. /기아

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또 기아의 대표적인 장기 사회공헌 활동인 장애인 여행 지원 사업 '초록여행'은 이동 편의 제고 노력을 지속한 결과, 누적 수혜자 11만 명을 돌파하며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다. 기아는 지방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생필품 조달 곤란) 현상을 해소하고 고령층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신선식품 무료 배송 서비스인 '무브투유(Move to You)'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일조하고 있다.

◆투명 경영과 협력사 상생 생태계 조성

기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협력사와의 '동반 탄소 감축'이라는 상생 경영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 현대차그룹, 중소·중견 협력업체 87개사가 참여하는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한 1차 협력사의 저탄소 설비 전환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본사의 지원을 받은 1차 협력사가 다시 2차 협력사를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의 그린 전환(GX)을 견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매분기 개최해 ESG 현안을 엄격히 감독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보수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함과 동시에 선임독립이사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건전성을 강화했다.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2025년 총 주주환원율(TSR)을 34.9%로 전년 대비 1.5%p 확대하고 주당 배당금을 6800원으로 확정하는 등 책임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기아는 8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여러 위기를 헤쳐 온 저력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실행과 이해관계자외의 동반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아는 이러한 ESG 경영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글로벌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 지수에 4년 연속 편입되었으며, 전 세계 상위 10%의 지속가능 경영 우수 기업으로서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고히 굳혀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박지성·이영표 세운 '축구혁신위' 출범...한국 축구 구할까 /사진 뉴스사
▲벤투 전 감독 지원설에...축구협회 "근거 없는 루머" 일축

▲KBO, 해외 아마·프로 출신 대상 2027 신인드래프트 참가 접수
▲미국 매체 "고우석, 트레이드로 미네소타행"...MLB 데뷔 임박

▲조선 기록, 만세에 전하다...실록 4대 사고본 첫 동시 공개
▲판타지 시대극 주인공 찾아오...AI 공모전 '왕과사는 나'